

12월의 기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이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14절>



1. 2018년 한 해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성회가 이뤄지도록 도우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2. 오는 2019년 기해년에도 계속해서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3.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5.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오사카순복음교회(정대원목사),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목사), 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김정환, 김태승,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이시은, 이태원 내과의원, 최인철, 한사랑순복음교회(박유성목사),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256-890020-00804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어둠이 오면 하늘을 보라 별들이 보인다

1980년대 미국 월 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광고 문구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의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은 이제껏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당신은 넘어지고 말았지요. 처음 수영을 배웠을 때, 당신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요. 처음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을 때 야구 방망이가 공에 맞던가요? 강타자들, 홈런을 제일 많이 치는 타자들은 아웃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R. H. 메이시는 7번이나 실패한 뒤에 간신히 뉴욕의 가계를 성공시켰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존 크리씨(John Creasy)는 564권의 책을 출간하기 전에 753통의 거절 편지를 받았습니. 베이브 루스는 714번의 홈런을 날렸지만, 1330번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실패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삶의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는 다가올 성공을 위한 학교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실패가 무서워서 아예 도전해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각오를 하고 무엇이든 주안에서 실행하면 성령께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한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면 결국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고, 꿈이 항상 소망 차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이 아닌, 어둠 가운데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조용기 목사의 지나온 발자취 (III)

“서대문 교회” 시절



1961년 11월에 서대문 순복음 부흥회관이 완공되었다. 천막교회에서 그곳으로 이사했고 교인수도 3백명을 넘어서서 주일마다 2,30명씩 새로운 성도들이 모여들었다. 이듬해인 1962년 4월 26일에는 드디어 조용기 전도사의 안수식이 있었다. 그리고 5월 13일에는 순복음 부흥회관을 순복음 중앙교회로 교회명칭을 바꾸기에 이르렀고, 5월에 들어서면서 교인 재재수는 5백명을 넘어섰다.

서대문 개척교회로 3년째 접어들 1964년에는 교인수가 3천명에 이르렀고 조용기 목사가 이끄는 순복음 중앙교회는 5천, 6천, 7천명의 교인으로 날로 부흥되어갔다.

성도수 증가는 담임목사 1인 목회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조 목사의 건강도 극도로 쇠약해지면서 목회적 돌파구를 고민하게 된다. 그때 성경을 묵상한 내용이 출애굽기(18:18)와 사도행전(2:46~47)이었다. 초대교회 시절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목회에 적용한 것이다.

교회는 ‘가정 안에 있는 교회’를 시작했다. 여 집사를 중심으로 서울을 20개 교구로 나누는 구역 조직을 탄생시켰다. 교회는 각 구역장에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가르쳤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했다. 구역예배는 묵도와 사도신경, 찬양, 합심기도 후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또 구역원이 15명 정도가 되면 새로운 구역으로 분리시켰다. 그 결과 67년엔 수백 개의 구역으로 확대됐고 68년엔 구역 조직에 힘입어 성도 수 8000명을 바라보게 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구역 조직의 활동으

로 79년 11월 10만 성도를 돌파하게 된다. 단일교회로서는 사상 최고 기록으로 평가된다. 2년 뒤인 81년엔 20만 성도로 배가 부흥했다. 이렇게 교회의 경이적인 성장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구역’이라는 말은 ‘셀(Cell)’로 번역돼 통용된다. 구역 조직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단기간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한편 교회는 60년대 중반부터 세계선교에 참여한다. 그 계기는 1964년 미국 하나님의 성회 본부가 교단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조 목사를 초청하면서부터다. 조 목사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교회 상황과 비전을 제시했고 희망이 넘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 목사는 기념식 이후 2개월간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한국과 한국교회를 알렸다. 한국전쟁으로 잿더미만 남은 나라로 알고있던 미국인들은 그의 설교에 감명을 받았다.

교회는 1969년 하나님의성회 동북아시아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 13개국 대표 130여명과 200명의 옵서버가 참석했다. 대회는 매일 3차례 성회를 열면서 참가국들의 나라와 교회들을 소개했다. 이는 한국교회 안에 세계선교의 불씨를 제 공하는 단초가 됐다.

교회는 1968년 성도 8000명을 넘어서자 교회 이전을 계획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의 여의도 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된 허허벌판 모래 섬 여의도에 부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교회가 여의도로 나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만류했다. 그 모래 벌판을 누가 찾겠냐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옳은 말이었다. 본교회 교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여의도에서 새로 출발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었으므로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는 내일에 대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목회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생각에 여의도로 향할 결정을 내렸다. 건축비 부족으로 인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마침내 1969년 4월, 새 예배당 착공을 시작해 1973년 8월 15일 1만 명이 한꺼번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동양 최대 돔(dome)식 교회당을 완공했다.

새로운 예배당에서는 세계오순절대회가 곧바로 개최됐다. 아시아 최초로 열린 이 대회에는 39개국에서 2000여명의 외국인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김포공항 개항 이래 가장 많은 외국인 입국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5만여명이 참석해 화제가 됐다.

세계선교를 위한 노력은 1976년 11월 CGI(Church Growth International, 국제교회 성장연구원)를 설립, 세계 교회 목회자들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장됐다. 교회의 선교 행보도 갈수록 불타올라 1976년 4월 베를린에 순복음세계선교회 유럽지구연합회가 조직됐고 78년 4월 당시 서독 칼스루헤에서 조 목사를 강사로 한 개신교 최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유럽에서 오순절 신앙과 순복음교회를 향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본에서도 ‘일천만 구령운동’이 전개돼 큰 호응을 얻었다. 1979년 중남미 코스타리카에서는 최대 집회와 교역자 세미나가 개최되며 오순절 성령의 불씨를 심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죄와 궁핍과 질병과 죽음 등 갖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믿지 않는 자들의 핏박

바울은 전도여행중에 많은 핏박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 하던 중 짐치는 귀신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행 16:16-18) 여종은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이 누구든지 야나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치며 여러 날을 괴롭혔습니다. 이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그 여종에게서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쫓겨 나간 여종이 짐을 칠 수 없게 되자 수익을 잃게 된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의 관리와 상관에게 끌고 가고 발했습니다. 이에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많이 친 후에 그 발을 차꼬에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울만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막 16:17). 그러므로 여러분도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2. 바울과 실라의 태도

한 밤중에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차꼬가 풀어졌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달아난 것으로 생각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접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크게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중략)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찢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16장 16-34절)

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 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의 행위를 막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행 16:28-31).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사회에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 중에 쉽게 낙심 되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이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고 긍정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바를 긍정적인 마음의 터전에 그려야 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려놓고 늘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꿈이 이뤄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꿈꾸고 믿으면 입술에 창조적인 말이 나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습니다.

3. 하나님의 대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창조적인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고 믿고 말함으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창조적인 말을 하십시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할 지어다." 그러면 행복의 파도가 다가오고 행복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3: 2)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을 꿈에서 현실에서 느낍니다. 하나님은 잠에서도 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깨워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차꼬가 풀린 것처럼 어려운 고비를 맞을 때 찬송을 하십시오. 그리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말씀하셨고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23)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그 이튿날 해방이 되고 자유의 몸이 되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주일 동안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혼자 아닙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2002년 온두라스 성회"



온두라스 국민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가난과 삶의 좌절로부터의 해방이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의 국립경기장에서 일어났다. 2002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현지시간) 온두라스에서 열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성회에 10여만명이 참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 받고 온두라스가 경제적으로 부흥되길 뜨겁게 기도했다.

'온두라스의 희망은 오직 예수'란 주제로 온두라스 하나님의 성회가 주최하고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의 주관으로 열린 성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살 길이기 때문에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하고 "죽음을 영생으로, 절망

을 희망으로, 가난을 부요로,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를 영접할 때 온두라스는 잘 사는 나라로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목사는 "한국도 과거에는 온두라스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1000만명의 국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제하고 "온두라스 국민이 예수를 믿고 정직하고 신실한 국민으로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성회를 준비한 온두라스 하나님의 성회 에르네스토 로페스 목사는 "이번 성회에서 1

만여명이 예수를 영접했으며 100명의 환자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로페스 목사는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교단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이번 성회를 통해 교회 일치 전환점으로 삼고 싶다"고 덧붙였다.

카톨릭이 국교인 온두라스에서 열린 2002년 11월 '온두라스' 성회는 1998년 허리케인 '미치'의 영향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중부 아메리카 온두라스에서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성회로 평가됐다. 조용기 목사를 초청 '온두라스의 희망, 예수'를 전한 성회는 예수를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도덕적인 회복이야말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인했다.

특집 11월의 하이라이트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2005년 미국 시카고 성회"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페이스 프로미스 미션'(Faith Promise Mission) 성회가 2005년 11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네이퍼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미국 갈보리교회(랜들 로스 목사)가 주최하고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이 주관했던 미국 시카고 성회에는 미국 교회 지도자, 장로, 기독교 실업인, 셀 그룹 리더 등 총 7000여명이 참석해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갈보리교회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믿음의 능력과 새로운 정체성'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박수와 '아멘'으로 화답했다.



것 △꿈과 비전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두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것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강하게 기도할 것 △항상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 △성령님과 동행하며 신앙을 지켜나갈 것 등을 제시했다.

성회를 주최한 갈보리교회 로스 목사는 "수 십년 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 성령 운동과 기도운동을 펼쳐온 조 목사의 메시지는 시카고와 네이퍼빌을 비롯해 일리노이주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꿈을 심어줬다"고 강조했다. 로스 목사는 "개인적으로 조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비전을 갖게 됐

다"면서 "조 목사의 부흥의 열정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 세계에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갈보리교회가 있는 네이퍼빌은 우수한 교육수준과 낮은 범죄율, 주민들의 높은 학력과 수입 등으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미국 최고의 교육도시이다. 이에 앞서 조 목사는 11월 12일 순복음시카고 교회에서 '시카고 한인들을 위한 축복 대성회'를 인도했다. 성회에는 인근 한인교회 지도자 30여명과 사모를 비롯,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시카고 복음화와 한인교회의 연합 사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